

새 책

▶노는 것이 공부-제주(강민성·강홍림 지음)=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다. 제주의 역사와 자연, 과학, 문학, 수학, 환경, 미술, 지질 등 60개의 '생각 주제로' 구성됐으며, 책 속에 담겨 있는 창의적인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잠재된 재능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법인 사람과사람들, 3만원.



▶고구려의 핵심 산성을 가다(원종선 지음)=이 책은 안시성과 백암성을 위시한 고구려 수도방어의 전략적 핵심 산성 85개를 선정, 두 발로 몸소 밟은 현장답사기록이다. 현장에서 현지인 사이에 회자되는 민담을 모으고, 지형과 연관된 산성들의 포진형태를 분석해 고구려산성의 전략적 가치를 조명한다. 특히 고구려가 중원 세력과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던 요인인 위치선정, 연계구조 등도 설명한다. 통나무, 2만3000원.



▶공산당 선언 리부트(슬라보예 지젝 지음·이현우, 김유정 옮김)=세계적 석학이자 이 시대 가장 위험한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슬라보예 지젝의 작품이다. 현대 세계사에 미증유의 영향력을 끼친 독보적인 저작인 공산당 선언을 고전으로만 치부되지 않도록 저자가 변증법적 역설을 통해 현재성을 증명해낸다. 창비, 1만2000원.



▶한·중·일 공용한자 808(김중혁·바른한자연구회 지음)=영어가 만국공통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한자를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어와 일본어, 한국어 사용인구가 각각 1위와 9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중·일 한자 전문가들이 모여 세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808자를 분류·선정했다. 하지만 808자를 제대로 풀이한 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를 아쉽게 생각한 한자 연구자들이 2년여 동안 매주 모여 토론·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 책이다. 학민사, 1만9000원.



▶엄마소리가 말했어(오승환 지음)=이 그림책은 자음과 모음을 언어유희를 이용해 아이 소리와 엄마소리로 풀어낸 다음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 언어가 되는 과정을 대화로 구성했다. 이제 막 글자를 익히는 아이와 어휘력을 늘려나가는 시기의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바랍과아이들, 1만5000원.



▶꽃자왈 몽생이(김정숙 지음)=제주아동문학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숙 작가의 동화그림책이다.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신비의 숲 꽃자왈, 그리고 강인한 지구력으로 유명한 제주의 말 몽생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몽생이가 친구들과 꽃자왈 숲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곳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담겼다. 한그루, 1만5000원. 송문범기자 seb1119@ihalla.com



25명 중 1명... 그들에겐 양심이 없다

마사 스타우트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우리 일상 속 소시오패스 성공 중시 현대사회 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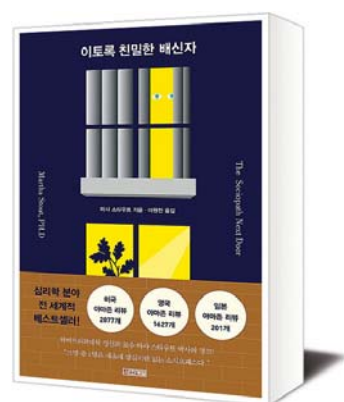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지 못한다. 기만적이고 영악하다.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하지 못한다. 화를 잘내고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 무모할 정도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무시한다. 지속적으로 무책임한 성향을 보인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학대하거나 무언가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같은 7가지 증상중에서 3가지 이상을 보일 경우 정신의학자들은 그 사람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의심한다.

소시오패스로 불리는 그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감정적인 경각심이나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 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4배, 결장암 환자의 100배

나 된다. 통계적으로 25명 중에서 1명은 본질적으로 양심이 없는 소시오패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40년 가까이 심리 상담 임상 경험이 있는 마사 스타우트 박사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만나면서 소시오패스에게 심리적·정신적 폭행을 당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가 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우리 이웃일 수 있는 소시오패스와 인간 양심의 문제를 들여다봤다.

저자는 소시오패스를 두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범죄자나 잔혹한 살인마가 아니라고 했다. 범죄와 관련된 소시오패스는 20% 정도다. 그보다는 옳든 아니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상사, 가족을 트로피처럼 여기는 아버지, 아무런 동기도 이익도 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동료,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이 아내에게 기생하는 남편 등 평범한 일상 속에 소시오패



스가 산다. 그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 무방비로 당하기 쉽다.

전통 사회가 인간관계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한다면 현대사회는 개인적인 성취를 높이 평가하며 타인을 늘려서라도 성공하려고 부추긴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시오패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과연 양심은 개인이나 집단에 도움이 되는 걸까? 정말 파렴치한 소수가 세상을 주무르게 되는 걸까? 저자는 아직 확실한 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다고 했다. 소시오패스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원천 옮김. 사계절, 1만6800원. 전선희기자

문명과 야만이 뒤엉키는 땅을 내달리다

김훈 장편 '달 너머로 달리는 말'

여기 초(草)나라가 있다. 수많은 유목 부족을 통합하면서 나하(奈河) 북쪽의 대륙을 차지한다. 초는 사슴뿔 모양을 본뜬 글자가 있었지만, 가족이나 사람 수를 기록하는 정도였다. '탕'으로 불리는 왕들은 문자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을 금했다. 초나라 사람들은 시와 노래와 춤과 놀이와 싸움을 좋아했다.

나하 남쪽에서 바다에 이르는 대륙엔 단(旦)이 있다. 단은 문자를 알았고 문자로 세상일을 적었다. 성벽을 쌓고 무덤을 꾸미고 닭과 비석을 세우고 '강'으로 불렀던 왕들의 모습을 그려서 사당에 모셨다. 땅의 소출을 거두어 사는 단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을 쟁여놓고 죽은 자의 귀신을 모시고 밭고랑을 가지런히 했다.

김훈의 장편소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은 저 아득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했다. 작가는 지하철 차창 밖 일상의 풍경 앞에서 문득 저기가 대체 어디인가, 저기는 왜 저렇게 생겼나란 의문이 들었고 그 절박함으로 상상의 세계를 쌓아올리며 시원(始原)의 지점까지 다다랐다.

소설 속 초와 단은 나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싸웠다. 문명을 등진 채 야생의 삶을 살아간 초. 문자를 숭상하며 왕궁을 지었던 단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유목적인 초, 농경적인 단은 세계를 인식하는 바탕이 달랐다. 그들 사이에 전쟁과 일상은 구분되지 않았다. 그 안에서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울부짖으며 태어나고 죽는다.

이들 결연 말(馬)이 있다. 비혈마 혈통의 수말로 달릴 때 목덜미 핏줄로 피보라를 일으키는 단나라



군목 황의 전마(戰馬) 야백, 초의 왕 표가 타던 신월마 혈통의 암말로 초송달을 향해 밤새도록 달리던 토하 등 말은 저마다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진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문명과 야만의 동반자인 말은 인간의 참혹하고 허망한 전쟁을 목도했다. 야백과 토하가 인간에게 끌려다니면서도 저항하는 모습은 작가가 이야기하려는 '생명의 힘'과 닿아있다. 파람북, 1만40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서로 손잡는 지역문화운동'

'동네 지식인 키우고 마을 기록하자'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문화의달 기념식. 지역문화를 건강하게 지킬 방안으로 마을 기록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일컫는 지방문화원. 현직에서 은퇴한 원로들이 쉬어가는 사랑방쯤으로 여기는 곳이지만 이즈음의 문화원은 그 풍경이 달라졌다. 제주문화원만해도 문화예술 강좌 개설은 물론이고 지역민의 눈으로 지역의 생활문화를 기록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벌여오고 있다. 다른 문화기관·단체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은 것은 문화원이 지닌 장점 중 하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내놓은 '서로 손잡는 지역문화운동'은 이같은 문화원 중심의 지역문화운동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웹진 '경기문화저널'에 실렸던 기획기사, 특별기고, 보론 등을 단행본으로 묶었다.

이 책은 지역 중심적 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엮음
협력·연결·지역탐구 방안
우리문화 다양성 지키는 일

지역,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 연결, 지역 탐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동네 지식인'이 등장한다. 동네 지식인은 그저 동네에 있는 지식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동네에 살면서 동네를 배우고 동네 생활 속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동네를 이해하고 동네에서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동네 지식인들에게 그곳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다.

대답이나 집필에 참여한 필자들은 동네 지식인의 양성과 더불어 지역 탐구를 강조했다. 지역을 탐구하고 마을을 기록하는 활동은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비공식적인 지역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기억의 흔적과 조각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마을 기록은 저마다 빛깔이 다른 지역 문화를 찾아내 그것을 풍부하게 만들고 역사에서 비껴 있던 민중의 생활사에 주목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마을에서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다 된다.

공동체를 기록하는 이같은 태도는 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지역민 스스로 자존감을 갖게 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으며 넓게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지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튼튼한 문화 구조를 만든다. 삶장, 1만4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Gallery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Tel. 064-750-2530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